

出版物交換局의 設置

— 印度太平洋地區國際出版物交換研究會에 參席하고 —

李 鳳 順

이번 東京에서 열린 研究會는 「유네스코」 後援으로 어떻게하면 國際的인 出版物交換을 圓滿하게하고 이를보다 더 効果的인 方法으로 할수있을것인가? 特히 各國政府나 行政機關에서 나오는 出版物을 交換할수있는 方法을 構究하여 1958년 봄에 열리는 「유네스코」 會議에 이를상정하는데 그目的을 두었다 그 範圍는 亞細亞地區와 太平洋地區에 있는 「유네스코」 參加國에 限하여 그 參加資格이 附與되었다 18個國代表 50余名이 日本國會圖書館에 모여 開會식을 하고 會議는 國際文化會館에서 가지게 되었다

첫째 議題는 參加國의 國際出版物交換事情報告였다 먼저 自田中國이 發言했고 둘째로 韓國이 發言하기로 予定되었는데 筆者는 「비자」 關係로 하루늦게 되어 둘째날 첫번째 機會를 얻어 우리나라事情을 說明하고 國立혹은 國際的인 交換事務局이 時急히 必要하다는것을 強調하였다 우리나라에 對한 關心도 있고 質問도 많았다 둘째 議題는 國立交換事務局에 關하여 그 活動範圍 또는 이를 創設하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問題를 論議하는 同時에 各國의 實情을 서로 報告하고 說明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交換을 맡아볼만한 「센터」가 없다 우리와같은 事情에 處해있는나라가 겨우 「마레야」 程度이고 그외의 작은 나라들도 다 國立出版物交換局이 있어서 國內外를 勿論하고 그事務를 担當하고 있다는 報告를 들을때 자연 얼굴이 뜨거움을 禁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 事務를 맡아보아야 할 機關이 不幸히도 들로 나누어있다 다른나라의 예를보면 大概 國會圖書館이 國立圖書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國立따로 國會따로 別個의 圖書館이 있고보니 이를 說明하는데도 辟애를 썼다 弱한힘이 들로 나누게 되고보면 그 힘이 더욱 미약해지고 마

는감이 없지않다 그리고 이번에切實히 느낀것은 그所屬은 어디에 두든지
別問題로 하고 時急히 國立出版物交換局을 設置하여 外國과 連絡을 取하는
同時에 交換事務를 担当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現在「센터」가 없
으나 準備中에 있으니 于先 文敎部와 連絡하라고 對答하는 도리 밖에 없
었다 世제議題는 交換資料였다 여기서 특히 論議된것은 政府나 行政機關
에서 나오는 出版物 (official publication)에 對한 定義를 내리는데
어느 限界까지 包含시키느냐가 相當히 論議되었다 그理由는 各國事情이 서로
다른 畵에 宜물로 꼭 이것이다 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다음 우리나라
와 交換하고 싶은데 어떤 目錄이나 書誌가 參考資料로 있는가 하는테는
또 뜬다 우리는 現在 아무런 이렇다고 비용을 만한 目錄이나 書誌가
없다 勿論 部分的으로 사사로운 機關에서 나오는것이 아주 없는것도 아니
겠으나 國家적으로 말하는 (National Bibliography) 는 아직없다 그럼
으로 누가 무엇을 갖고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출판하고있는지 到底히 아는
道理가 없다 이것은 圖書館人들이 벌써부터 머리를 앓고있는 問題의 하나이
다 書誌가 없는 畵에 아무리 훌륭한 資料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있고 利用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甚甚한 일이다 이機會에 우
리도 「센터」가 생기고 빨리서둘러서 그方面의 專門家들이 모여 古書만을
취급하는 書誌가 아니라 그야말로 (National Bibliography) 를 만들어 내
도록 努力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科學部門이나 그밖에
專門적인 學會와 連絡하고 싶은데 그런 一覽表혹은 「리스트」가 있는냐는
質問이 있었다 당장 「리스트」는 되어있지않으나 文敎部에 登錄되어있으니
그리 連絡하면 알수있을것이라 答辯했다 특히 科學部門과 學會에 對한 關
心이 많은것은 研究資料 혹은 論文을 交換하려는 意圖에서였다 그럼으로
書誌나 「리스트」가 없으면 資料가 있어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取扱을 받으
지 못할다 또한가지는 言語 다시 말하면 用語問題였다 어느나라든지 書誌는

母國語外에 제일 많이 쓰이는 外國語로 出版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意見이 있었다. 역시 費用問題가 따르는 일이지는 하지만 大体로 英語를 使用하는 데는 別로 反對가 없었다. 네째는 來年봄에 「유네스코」 本會議에 上程될 國際出版物交換에 關한 草案을 가지고 討議하였다. 이에 關하여서는 準備委員이 나가지고 會議에서 討議된 事項을 成文化하여 會議에 내걸고 速조 討議하여 通過시킨 후 이를 「유네스코」 本部에 보내기로 하였다.

우리 研究會는 何等의 決定權은 없으나 研究會의 草案이 크게 反影될 것을 믿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各代表가 돌아가서 自己政府와 議論하고 妥協하여 會員國으로서 사사롭게 「유네스코」 本部에 要請도 할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會議의 性質이 研究會인 만큼 各나라代表들도 매우 眞摯한 態度로 열심히 出席하였다. 用語는 英語로 했고 通譯은 하지 않았다. 臨時議長은 5인이 選出되어 차례로 會議을 進行시켰다. 몇분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圖書館人인데 더욱 意義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圖書館人들이 別로 認定을 받지 못하고 圖書館事業이 發達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圖書館人도 認定을 받고 있고 圖書館도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는 實情을 들을 때 몹시 초조한 감을 禁할수 없었다. 全體的으로 볼 때 이번 研究會에서 우리가 尊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본다. 現役圖書館人들이 協力을 하고 中突에 書誌 「센터」가 생겨서 出版物을 交換할수 있는 資料를 提供하는 同時에 中間役割을 하여준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남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나갈 날이 올것을 믿는 바이다. 現在는 別로 關心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書誌出版局과 國立出版物交換局이 設立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극이 된다면 이번 研究會에 參席한 한사람으로서 다시 없는 榮光이라고 生覺한다. 이번 會議가 亞細亞地區에서 열린 出版物交換에 關한 첫번 會議였고 앞으로 繼續해서 圖書館人들끼리 모이는 會議가 있을 줄 믿는다. 이런 會議때마다 代表가 나가서 우리나라를 認識시키고 또 한편 자극을 받아 온다는 것이 文化交流를 부르짚는

요즈음 더욱 뜻깊은 일이라 생覺된다 이번에 亞細亞地區圖書館協會創立總會도 遂하여 開催되었다 亞細亞圖書館協會創立總會는 東京 「히비아」 公共圖書館에서 열리었다 이總會에는 十三個國代表들이 모여 먼저 總會를 爲한 洋備會談을 열고 그 方法과 篩次를 討論한後 11月11日에 비로서 協會가 榮足하게 되었다 그 趣旨는 大體로 亞細亞地區에 있는 圖書館人들이 한데 모여 各自의 經驗을 나누고 實際的인 問題를 議論하여 圖書館事業의 發展과 向上을 꾀하는데 있었다 우선 亞細亞地域에 있는 圖書館人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世上에 알리는데 더 큰 意義가 있을것 같았다

總會結果는 會長에 日本國會圖書館長 事務局長에는 日本圖協事務局長 副會長에는 近東 中東 極東 三地域에서 한사람씩 扶하게 되었는데 「비콜빈」 印度 「파키스탄」 等의 圖書館協會長들이 각각 選出 되었다 (우선 이렇게 하여 始作해 놓고 앞으로 자리잡히는대로 事業을 計劃하고 해마다 年會를 가지게 되었다 會員國을 차례로 돌아가며 모이고 그때마다 各自自己내實情을 報告하고 資料를 交換하고 圖書館人들 相互間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는 同時에보다 科學的인 圖書館管理를 꾀하게 될 것이다 이번機會에 日本의 大學圖書館으로서 東京大學 慶應大學 天理大學 京都大學의 네곳과 公共圖書館은 「히비아」 와 大阪의 두곳을 보았다 大學圖書館들은 藏書자에는 別로 特別한 印象을 받지 못하였고 「히비아」 公共圖書館은 훌륭하다고 생覺되었다 建物부리가 最新式인데다가 內容도 갖추고 特히 視聽覺教育部門의 設備는 놀라운 것이었다 地方이나 地域社會 圖書館을 볼機會를 갖지못한것이 유감스러웠다 두會談에 參席하느라 잠을 벌도리가 없었다 圖書館事業이 남보다 뒤떨어진 우리들은 이런機會에 좀더 反省해볼 必要가 있다고 생覺한다 어서速히 圖書館法이 制定되고 學校圖書館 道立 市立 面立圖書館等이 活潑하게 움직이고 이를 利用할줄아는 國民이라야 비로서 그나라의 자리잡힌 文化를 자랑할수있게 될것이다 그리고보면 무엇보다도 圖書館普及運動이 時急한 問題인것 같다 이圖書館事業은 어느한個人이나 國體만이 問題가 아니라 國家와 國民全體가 協力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筆者 圖協理事 梨花女大圖書館長)